

Occulations From Heaven



베로니카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신 소화 테레사 성녀의 詩的메세지

Occulation - 라틴어 동사 'occulo'는 '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ation' - 상태, 행위 또는 질(質)을 뜻한다: 결국, 숨는 행동, 숨어 있는 상태, 숨는 본성(本性)을 가진 존재를 뜻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 말은 소화 성녀의 詩 행간(行間)에 숨겨진 내용을 뜻하며, 인류에게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는 세상에 그녀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베로니카 육신(肉身) 내면에 신비스럽게 숨어있는 그녀의 현존(現存)을 뜻할 수도 있다.

배경

베이사이드의 시현자. 십자가의 베로니카는 주부였고, 또 다섯 자녀의 어머니였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녀가 귀천한 1995년까지, 25년간 이 성지에 발현하셔서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 주셨다. 천상 방문의 이야기는 소화 테레사 성녀가 그녀에게 발현하시며, 詩와 거룩한 말씀들을 받아쓰게 하신 1968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전에는 베로니카가 천국으로부터 어떤 현시(顯示)를 받은 적이 없었다.

1970年 4月 7日, 성모님께서 베로니카의 집에 발현하셔서 말씀 하셨다. 그녀는 1970年 6月 18日에 베이사이드에 있는 (舊) 성 로버트 벨라민 교회 마당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곳에서 철야기도회를 열고, 성모님의 첫 발현을 위한 준비와 모든 지시사항을 교구 성직자들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그녀가 택하신 거룩한 그곳을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로사리오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성역화(聖域化)하고, 바실리카를 세우도록 요청하셨다. 또 그녀는 교회의 대축일 전야(前夜)에 오실 것이며, 그날을 베로니카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베로니카에게 그녀가 내려준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영혼을 낚아서...

1979年 10월 2일 성녀 소화 테레사는 - “오, 자매님, 나와 함께 영혼을 찾으러 갑시다. 몇 년전에 고기를 낚으러 같이 가자고 한 말을 잊지 않으셨지요? 자매님, 그때 나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철야기도는 기도 달력에 쓰여 있는대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성시간은 주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계속된다. 만일 발현장소에 참석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Occulation from Heaven은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에서 出版되었다. P.O.Box 52, Bayside, N.Y. 11361

시작을 테레사 聖女와 함께...

1968년 6월 5일, 라디오를 듣고 있던 베로니카는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가 저격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정신이 혼란하였다. 베로니카는 마음으로부터 동정심이 일기 시작했다. 케네디 가문은 천주교 신앙을 같이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계속된 비극으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건설 현장까지 남편을 배웅하는 길에 베로니카는 죽어가고 있는 상원의원을 위한 기도 모임에 합류하였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바비(로버트 케네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어린 시절 들어보았던 테레사 성녀의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레사 성녀는 '작은 길의 성인' 또는 '영적 어린이의 길'과 같이 초성적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기적이나 전구(轉求)를 잘해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성녀의 전구를 청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은 베로니카는 마음 속으로 기도를 바쳤다. "아, 테레사 성녀여, 제발 중재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베로니카는 그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비록 그가 몹시 심각한 상태였지만, 많은 기도에도 힘입어서 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장미꽃 냄새가 짙게 흠뻑 나고 나는 몹시 놀랐다. 마치 내 코 바로 밑에 장미꽃 잎이 있는 것 같았다. 너무 좋았다! 장미 한 송이가 아니었다. 마치, 꽃가게 안을 걷고 있는 듯했다!"

형언 할 수 없는 향기가 지속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아서 베로니카는 곧 잊었다.

그날 늦은 오후, 베로니카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였다. 의사의 검진이 끝난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바비(로버트 케네디)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첫 성모송을 막 시작하는데, 독특한 장미 냄새가 또 흠뻑났다.

방부제 냄새 가득한 병원에서 강한 장미 향기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날 베로니카는 다소 놀랐다. 장미라곤 근처에 없었는데, 장미 향기라니! 그리고, 곧 잊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고, 베로니카는 고백성사 시간에 설리번 신부에게 상의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설리번 신부는 베이사이드힐에 위치한 성 로버트 벨라민 본당 사제들 중의 한 분이셨다. 설리번 신부는 하늘은 자극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니, 흥분할 것도 없고 불필요하게 혼란스러워 하지도 말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인도를 청하는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베로니카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생각이 성가시게 떠올랐다.

그동안, 상원의원 케네디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베로니카는 그가 기적으로 회복하리라는 신뢰 속에서 밤늦게까지 목주의 기도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남편 아더가 자정이 넘었으니 이제 그만 자라고 몇 번씩이나 말을 하자 그녀는 바비가 죽어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불평하였다. 이때가 새벽 2시였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는 새벽 1시 44분에 죽었다. 남편 아더는 이 비보를 접하고 몹시 당황하였다. 베로니카는 설리번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성당으로 갔고, 그녀는 일전에 해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며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충고하였다.

상원의원의 장례절차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장미 향기를 또 맡았다. 이것이 세 번째였다. 베로니카는 “나는 베란다로 나갔고, 하늘을 올려보았다. 성모송을 염하며 성모님께서 그 영혼을 중재해 주시도록 청했다.” 라고 말하였다.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장미 향기가 내 앞을 스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는 놀라서, 나는 “**재발 그만!**”이라고 말하자, 즉시 그 향기는 사라졌다.” 베로니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새벽 3시, 어떤 목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그리고 베로니카에게 다음과 같은 시(詩)를 쓰도록 요청하였다 :

작은 기적 : 바비와 레테사
천상 향기의 신묘한 장미꽃잎
그녀의 장미 바구니에서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길 따라 열린 하늘길
그날 바비는 마리아와 모이세에게 입맞춤 하였다.

그때 베로니카는 “너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천주의 모친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의 어머니께”라는 시를 받아쓰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아더(남편)가 목격을 하였으며 그는 실망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였다.

베로니카는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서,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생각났다.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썼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베로니카는 무엇인가 일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고, 보스턴의 쿠싱 추기경님께 편지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그분과 여러 통의 편지가 오가게 되었다.

베로니카의 말에 따르면, 쿠싱 추기경님은 그녀의 베이사이드 환시를 믿는 것도 또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분을 찾아볼 계획을 세웠지만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셨고, 그 병을 극복하지 못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베로니카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급해 졌다. 혹시 그분이 그녀와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신다면, 이 환시가 진실이고 또 믿으셨다는 어떤 징표를 그녀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었다. 또 그분이 돌아가신 후 2~3주 내에 주시기를 바랬다.

쿠싱 추기경은 곧 대답을 주셨다. 메사추세츠, 도르체스터, 쿠싱가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이 어느날 베로니카를 방문하였다. 그녀는 짧은 기간이지만 철야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었으며, 베로니카에게 아름다운 칼멘의 성모상을 선물하였다. 베로니카는 그녀에게 이 훌륭한 성상(聖像)과 헤어지면서 섭섭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 여인은 이 성상(聖像)을 베로니카에게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 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성상이 쿠싱 신부(神父)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것이며, 몇 년 후 그 분은 보스턴의 추기경님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들은 이 말을 들은 베로니카의 충격과 기쁨을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추기경님이 믿고 계셨다는 징표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내가 주시하고 있을 때, 빛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벽을 뚫어서 나를 향해 오면서 점점 큰 원이 되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도대체 뭐야? 갑자기 방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마치 - 머리를 광대한 우주 속으로 밀어 넣은 느낌이였다. 매우 조용하였다. 안개 같은 것이 내 얼굴 앞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그 원은 회색 빛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계속 주시(注視)하고 있는 그 빛은, 먼 곳에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었다. 둥근 형태의 그 빛은 점점 커지며, 나를 향해서 밀리고 있었다.

1968년 8월 6일, 성녀 테레사가 베르니카 원실에 발원하였다. 베르니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화요일 아침 10시쯤, 나는 그대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옷장 위를 털이개로 털고 있었다. 그곳에 조그마한 제단만 만들어서 모셔 놓았던 테레사의 聖像이 ‘왕’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분명히 깨어졌으리라고 생각했다. 들람게도 부사지는커녕, 조그마한 상처조차도 없었다. 나는 감동해서 말했다. ‘오, 테레사여, 부러지지 않아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성상을 내려 놓았을 때, 오, 저런! 너무 충격 - 그 성상 오른쪽 가슴 뒤편에서 빛이 점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때 나는 그 정리가 안에서 있었다. 그 빛은 흰 빛, 마치 수정(水晶) 같은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 까닭은 벽에 세워 놓은 원형 정리장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 동쪽에서 오는 것 같기에 믿는다.

1968년 8월 5일, 베르니카는 “나는 남편을 성문터에 보내서 내 옷장 위에 모셔놓을 조그마한 성녀 소화(小聖) 테레사 성상(聖像)을 사오도록 부탁하였다.”고 말하였다.

“베르니카는 처음으로 돌아왔고, 성경을 펼쳐서 왼쪽 페이지를 보았다. ‘오, 저런!’ 그녀는 소리 쳤다. 밖은 빛이 나타나며 그녀가 읽어야 할 부분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숨이 27장이었다: ‘나 자네에게 하느님의 힘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분의 속뜻을 열어 보이 주리라.’ 그때 베르니카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향은 그곳을 향으세요.....

베르니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한 채 신부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개별 진정하지 않고, 진으로 물으려 하세요... 그때가 다섯 번째 발음이었습니다.”

“나는 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성녀가 나에게 처음으로 지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집의 집에 다녔을 때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베르니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진으로 가서 성경을 들고 손가는 곳을 펴보세요, 원손으로 잡히는 쪽, 눈이 가

1968년 8월 4일 새벽 4시 30분, 베르니카는 거실에서 새벽 미사 참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 편지를 넣은 액자가 거실용,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포로렐라가 던진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넘어가듯이 움직이며, 베르니카의 발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예상하지 않았다. 베르니카는 서둘러서 성(聖) 모버트 벨라민 교회를 갔다. 이번에는 내분의 사제들이 한 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르니카의 개인 지향을 위해서 미사를 바치려 했더니 아니라, 어느 편지에는 바비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를 위한 미사 카드가 동봉되어서 온 적도 있었다. 베르니카는 몹시 기뻐했고 액자에 넘어져 거실 벽에 건어 놓았다.

“갑자기 그 빛이 얼굴 형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얼굴이 보였다. :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고 - 아주 조그마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 모습이었다. 나는 혼자 중얼 거렸다, 저런, 머리는 어디 있어, 목은, 몸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녀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떠왔고, 나는 곧 바로 그녀를 바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이전부터 알고 있는 듯 했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 어쨌든 사람처럼 보였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고, 이 빛만 아니라면,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빛으로 가리워졌다고나 할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은 몸통은 없는데 얼굴은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또 말했다 : ‘아니 또 뭐야?’ 내가 ‘뭐야’ 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폭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어떤 힘이 내 얼굴 오른쪽을 쳤고, 내 머리는 위로 또 왼쪽으로 재쳐졌다.

“그 얼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그녀의 피부 밑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피부는 매우 희게 보였다. 사실, 그 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그녀의 코, 입은 생각이 나지 않았고, 눈만 기억이 나는데 행복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있을 때, 말이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천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나는 몹시 전율을 느끼며 소리쳤다. ‘테레사 성녀아닌가! ‘나의 아들 레이몬드가 방으로 뛰어 들어온 것을 보면, 내가 소리 지른 것이 틀림없다. 그 당시 그는 10살 이었다. 내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방안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 볼 수 있었다.

“정신이 들며 생각이 돌아오는 듯 했다. 오, 저런! 내가 이제껏 정신을 잃었던 말인가? 내가 지금 사물들을 보고 있는 것은 맞아?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재차 확인 시키고 싶어서, 레이몬드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레이, 엄마한테 말해 보렴, 너는 지금 옷장옆에서 무얼 보고 있지?’ 그가 말했다. ‘엄마, 저기 얼굴이 퉁퉁한 여자가 있어.’

“표현을 하자면 테레사는 볼이 둥근편이고 얼굴이 둥글었다. 나는 다시 한번 레이몬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단다. ‘레이, 엄마한테 말해보렴, 너, 정말, 무언가 보이니?’ 그가 말했다. ‘엄마, 얼굴이 퉁퉁한 여자가 있어, 그런데 온통 빛나고 있어!’ 그때 그 빛은 사라졌고, 그녀도 사라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테레사 성녀의 환시로 당황하고 있던 레이몬드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고,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 친구들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반응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고, 그의 학교 친구들의 놀림으로 결국 그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레이몬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테레사 성녀를 본 증언을 테이프에 남겼고, 그것은 2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엄마의 거듭된 요청으로 된 것이었다. 10살 배기 아이들이 친

구로부터 '미친 애'라는 말을 들으며 조롱 받을 때, 상처가 몹시 컸을 것이다. 그러나, 베로니카 자신은 테레사 성녀를 본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했다. 그래서 성 로버트 성당 교백소에서 사제에게 상담하기에 이르렀다.

베로니카의 '폭발'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녀의 얼굴에 강한 힘이 와서 부딪쳤을때, 테레사 성녀가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3일 동안, 테레사는 그녀 안에서 함께 머물며 많은 메시지를 그녀에게 받아쓰게 하였다.

베로니카는 정확하게 3일 밤과 낮을 깨어 있었다. 받아쓰기를 끝낸 후에야 베로니카는 쉴 수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깨이났고 그녀를 끌어내는 것같은 힘에 의해서 그녀는 밖으로 나와서 떠 다녔다. 마치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테레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란만한 경험이었다. 테레사가 떠나갈때, 베로니카는 매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몇 주 후 테레사 성녀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을 때, 베로니카에게는 다시 위로가 되었다.

테레사 성녀가 베로니카의 육신을 이용한 것을 재육화(再肉化)라는 식의 잘못된 이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띄고 테레사 성녀가 베로니카 내면(內面)에 들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년이란 세월동안, 테레사는 천국과 그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일러 주었다. 그녀는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보내졌다. 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나의 천국을 지상에서 선행을 하며 보내겠다.'

테레사 성녀는 베로니카에게 자신이 그녀에게 말해준 모든 것을 글로 남기고, '날짜'를 적어 놓고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이름과 함께, JMJT(Jesus, Mary, Joseph, Theresa)를 명기해 놓으라고 말해주었다.

베로니카 - 수년전, 성모님께서는 1968년, 1969, 1970년 초기 메시지들을 소책자 또는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하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성모님과 테레사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에 성녀 테레사와 성모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내려 주신 메시지들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 드리려고 한다. - 어떻게 만들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그것들이 쓰여 졌는지.

1969년 5월 23일, 테레사 성녀는 베이사이드 69번지 아파트 내 방에 발현하였다. 그녀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를 시적(詩的)인 형태로, 전해 줄 것이며, 문장체(文章體)로 쓰여진 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詩)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이 세상에 내려주는 깊고 진지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테레사 성녀는 이 메시지를 '하늘에서 흐르는 눈물'이라고 부르자고 하였다.

하늘에서 눈물이 흘러 내린다;



하늘에서 눈물이 흘러 내린다;
문들이 다시금 열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보여드린다.
그 분들의 머리는 슬픔에 떨궜지고,
성심(聖心)에선 근심으로 피가 흐른다.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건만,
기도중에 마음을 들어올려 달라고 부탁을 하셨건만.

나는, 연민으로, 그분 얼굴 어루만지며,
눈물에 젖은 그 얼굴에 입을 맞추다.....
시간은 그분 마음의 고통을 덜지 못했기에,
우리 시대에 더욱 힘들어 하신다.
자녀들은 그분 간청을 외면하고,
세속에의 집착으로 잊어만 가니
우리들의 영혼이 후회할까와
사랑을 애원하신 그분이셨다.
그분은 한 조각의 애정이라도 구하시며,
사소한 흔적조차 찾으시지만,
왜 우리는 거절을 하는가!
죄의 생활로 허약해지기만 하였는데,
그분은 동정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실 뿐 --
주님은 인간에게 타고난 양심을 주셨고,
충성과 진실의 길을 걸게 하셨다.
육신 패락으로 악은 더욱 깊어만 가고,
주님은 선(善)을 일깨우신다.
사탄에게 가는 길은 쉽지만,
천국은 어렵사리 얻어지는 것.
천국으로 오르는 사다리는 기도뿐이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면,
발걸음은 빨아지고, 더 높아진다.
자, 모든 수고와 슬픔을 받아들이자,
더 해진 은총은 기쁨이 된다.
지상에서 낮은 자리 받아들이며
천국에서 밝은 자리 예약을 하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테레사 성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리고 이 글들을 읽다보면, 내가 즐기고 있듯이 테레사가 갖고 있는 유머 속에서 어떤 놀랄만한 통찰력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테레사는 때때로 매우 익살스러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표현했고, 또 전해주었다. 나는 1969년 5월 23일에 내려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테레사는 나에게 이 메시지를 받아쓰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써 내려가게 한것을 보기로 하자.



모든 고통에 감동하여, 오직 당신만이 양고있는
 고음, 흠뻑, 그리고 기쁨으로
 사름여지 보름—
 천사하기(天使) 가능하다:
 천국이 온 으리라는 신뢰 속에 양용되고,
 음울과 보람의 새월 속에서
 사름여지는 천백의 기억음 가슴에 담아왔다.
 구름보다 가벼워라, 꽃보다 부드러워라,
 잔미꽃 아래 신자기는
 진귀 하느니라!

잔미꽃아래신자가

1969년 5월 20일, 테레사는 나에게 또 다른 시적 메시지를 받아쓰게 하였고, 그녀는 제목을 '잔미꽃아래
 신자가'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밤은 천국에 들어올았는데,
 꿈 단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두 팔은 음울으로 꿈시 힘겨운데,
 더 필요할 것이 아니라고 믿으하지 마세요!
 나는 착한 마음으로 내 영혼과
 또 당신께 대화가야 할 영혼들용 피신 속죄하였고,
 기도들도, 간절한 애원도,
 들어진 부스리어들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손에는 지상의 여권이 들려있고,
 머리아와 테레사 성녀가 서명해 주시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면
 공명 당신께 기쁨을 드린다고,
 그래서 나의 원의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발, 예수님, 말씀 영아주세요!
 내 영혼 죄로 약해졌지만,
 당신을 믿어들이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화백 영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맘에 말씀 드려낸 천국,
 아, 나는 온을 빛에 둘러싸이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진심한 영혼들
 그 말씀은 참이었습니다!

잔미꽃아래신자가

1969년 10월 11일 테레사 성녀는 세상에 시적(詩的)인 형태로 쓰여진 메시지를 주시며, '빛의 유예'라고 말해 주었다.

빛의 유예

덧없는 피조물, 인간은
 충성과 진실의 길을 걷도록 태어났건만,
 온전한 선(善)의 빛줄기에 등을 돌렸고,
 그 빛마저 슬프고 우울하게 변해버렸다.

사람이신 하느님께 하늘의 용서를 구할
 시간을 늘려주시도록 억지름 부리지만,
 이 영신은 거의 잊혀지고,
 영혼이 죽은, 육신만 살아 간다.

황금을 덮고 있는 어두움과 싸우며,
 붉은 색을 없애는 빛을 구하자.
 목자는 양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모아서 먹이실 것이다.

주위는 온통 어둡고 악한 이야기들뿐,
 영혼들이 밤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너를 찾아오시는 그분 사랑의 빛을 구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걷우어 내자!

고통중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두들 일어나라!
 높은 곳에서 오는 사람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고,
 네 주변의 악으로부터 생각을 들어올려
 신뢰와 눈을 하늘에 두자!

너희들과 결합할 동정심 많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지상의 어두운 여울에서 방황하지 말아라!
 밤의 기사들이 너희를 파괴하러 나와서
 범들게 하는 유혹을 지상에 뿌린다!

너희들 앞에 펼쳐진 지옥의 환시를 보아라,
 그리고 주님의 정의의 소리 높여 외쳐라!
 힘겹다 할 지라도 서두르고,
 손을 벌려 그분을 보호하자!

'알고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은 소수이고,
 그들은 멀리에 흩어져 있다.
 진실된 원의를 가진 이 영혼들과 결합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근대의 일원이 되자!



1969년 12월 5일 베로니카가가 받은 내용 :

의심하는 마음

성모님이 울고 계십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피를 흘리십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위한 천국이 있습니다!

1968년에 테레사 성녀는 나에게 발현하였으며, 나는 테레사 성녀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이 글들 중에는 대부분 성모님께서 등장하신다. 그리고, 나의 남편, 아더는 그 시기에 몹시 혼란스러워 했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며 당황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테레사 성녀가 나에게 내려준 메시지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주는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 몇 년간 나는 이 메시지들, 자필(自筆)로 쓴 메시지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일들과 모든 메시지,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테레사 성녀가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말해주는 이 시적(詩的) 메시지 - 테레사가 나에게 준 이 시적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매우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며, 10여 년이란 세월 동안 인간인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신비일 뿐이었다.

천국에서는 이미 잘 짜여진 계획이 있었고, '로사리오의 성모'라는 이름아래 천국의 사명을 실행해 풀어가듯이 풀어가고 있었다.

테레사는 지금 천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 한다고 말해주었다. ;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있으며, 우리가 힘들어 일하지 않으면 인류는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천국에 있는 성인(聖人)들조차도 지금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당황하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돕고 싶어 한다.

테레사는 그녀가 천국으로 갈 때, 그녀의 천국에서 시간을 지상에서 선행을 하며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글쎄, 나는 테레사가 천국에 계신 많은 다른 성인들에게 지금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확신시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매우 상심(傷心)하고 계신다. 그분들의 성심(聖心)은 다시 한번 찢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공경하지 못하다. 성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신다.

테레사는 말하였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세요, 그리고 '성인들의 새로운 활동'이라고 제목을 말해주세요". 시(詩)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메시지이다. 천국이 나를 하나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이나 연옥으로 갈 때, 우리들의 영혼 그리고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다. 육신을 죽어도 영혼은 항상 살아있다. 천국의 성인들이 더 이상 몸을 갖고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자, 계속하자, 그리고 테레사가 준 메시지들을 들어보기로 하자. 한 마디 한 마디 주의 깊게 들어보면, 테레사가 - 물론 성모님께서도 그 시간에 함께 계셨다 -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려한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말이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곧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지상의 자녀들이 알

기를 바라고 계신다.

지금 하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앞서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

성인들은 루치펜과 싸우고 있는 이 무서운 전쟁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로 결심할
을 하셨다: 특별히 루치펜이 지상에 풀려나온 이 시기에.

성인(聖人)들의 새로운 활동

예수님의 동정심 가득한 성심은
천상 사랑을 내어 주시고,
자녀들은 등을 돌린 채
지상의 세월에 몰두한다....

그분의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흐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리니,
자녀들의 마음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사악하고 경솔해졌기 때문이다.

그분은 저기 행복과 빛이있는 문가에 서서어
명멸하는 별들을 주시하실때,
영혼들은 어둠 속으로 기울어만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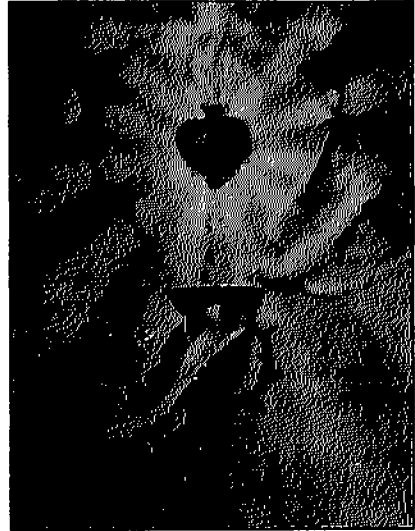
어둠이 깔리며
평화와 기쁨을 내리 누르자
사탄은 만족스러운듯
영혼들을 다룬다.

천국에서 솟구치는 한 기도는
또 다시 전쟁을 불러일으키며
영혼들을 악의 덫에서 꺼내려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쓰신다.
지상을 향해 내려오는 빛줄기처럼
한 형상이 내려오신다.

이는 분명 어느 성인이
영혼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시는 것,
모든 영광 중에 있는 성인들이
새롭고 지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길을 찾아 나선다.

지상 널리 여기 저기에
깨달는 영혼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한 성인이 별거벗은 영혼을 입혀줄
육신을 찾는다.
궁지에 빠져 보이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그분들이 어떻게
다가올수 있을까?
그들이 천국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이야기 하리라....



그들이 우리에게 기도 시킬 수만 있다면,
자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성심(聖心)을 내어 주셨고,
우리는 그 분께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을 드린 적이 있었나,
아니, 세속적으로 영리하기만 하였지.
사랑은 많은 배움이 필요치 않으니,

소리높여 말하자:

나는 늘 기도하며, 매일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마주뵈을 그날을 기다리리라;
그리고 우리가 장막을 넘어서면,
우리의 고통스런 마음을 하늘에서 도와주신다!

자, 늘 조심하고

우리의 생활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루를 실천해가면,

힘들지 않고 습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자:

사람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기에

하는 일 모두가 훨씬 쉬워짐을.

리지웨의 테레사 성녀가 베로니카에게 준 시적 메시지, 1977년 5월 9일 Vatican Site에서 열리는 철야 기도회에 가는 도중에 받았다. 그 당시 베로니카는 Staten Island에 살았으며, 그녀의 남편이 베로니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다. 테레사 성녀는 말하였다. "잘 듣고 인류에게 전해 주세요."

추수 때 손길

질문: 알곡과 썩정이름 갈라 놓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척도는 어떤 것입니까?

답: 추수 때 하느님의 손길은 그분의 지팡이의 권능으로 드러날 것이다.

즉, 하느님은 선(善)자체이시다. 그분만이 심판 하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지팡이: 측량하고 시험하기 위한것)

은총

주위는 온통 영광의 열매들이,
달콤하게 잘 익어서 포도나무에 열려있네;
아무도 모르는 세월의 씨앗이 잉태한,
먹음직스러운 신성한 열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 재배자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 씨앗(은총)이 있어야 영혼들 구원이 온다. 이들이 "영광의 열매들"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길을 따르며 찾아지는 궁극의 중만(하느님의 나라)을 찾아 줄 "씨앗"들이 뿌려진다: 신앙의 만개(滿開)는 십자가가 따른다. 장미꽃 아래는 늘 십자가가.

어느 누구도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완전한 영광을 아는 자가 없다!



테레사 성녀의 실제 모습 사진



1974년 9월 28일 철야중에 탈혼 상태의 베로니카 모습

제 손을 잡아 주세요

하느님, 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매우 작고 나약한,
찾아 가는 그 길에서
당신의 인도가 필요한 아이.
앞에 펼쳐진 가시밭 길을 갈 수는 있지만,
당신이 잡아 주지 않으시면,
분명 지볼 할 수 없는 댓가를
치루겠지요.
쓰러질 것입니다, 구를 것입니다.
그렇고 말구요.
그러나 당신께서 제 걸, 여기에, 계시며,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받아 주실 그 왕국으로 가는 길을.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느님

지극히 사랑하을 성부여... 저 밝은 빛 뒤에
숨어 계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불쌍하고 죽을 운명들이 그같이
우주적인 광경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족쇄에서 벗어날 때,
당신 걸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정배들을 당신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겠습니까?

1969년 11월 9일, 테레사 성녀는 "충성과 진실"이라는 시적 메시지를 나에게 내려 주셨다. 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기로 하자.

충성과 진실

당신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광채를 잃고 희미해졌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머문 세월을
땀을 할 수조차 없어요....
당신의 저축을 확인해 보세요-
은총이 얼마나 모아져 있는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서들러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당신의 갑옷을 손질하며
다시 한번 싸움을 준비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황을
따돌리고 있어요.
당신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당신의 말은 기도가 되어서
늘 돌보아 주시는 가족들인
거대한 군대와 결합합니다.
'충성과 진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참 사랑이 해낸 그 일을!

1969년 7월 8일, 성모님과 테레사 성녀가 내 방에 발현하셨다. 그리고 테레사 성녀는 나에게 '권고' 라는 시를 받아쓰게 하였다.

권고

근심으로 창백한 사랑하는 교황은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애를 쓰신다.
목장은 풍요롭지만, 양들이 예마른 것은
영혼들이 죄라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해변에서 힘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지상의 열은 여울에 어두움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진실히 간청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황폐의 슬픈 운명을 피하자.
사랑이신 어머니 마리아는 하늘에서 내리는
존엄하신 경고를 귀담아 듣고 유념하기를 애원하신다: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생명의 성신(聖神)을 애써 지워버리려는
너무도 많은 영혼들의 경솔한 포기로
그런 심심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 탐욕, 탐재, 허영 이라는 인간의 칼은 심장을 찢르고,
이 모두는 죄가 광기(狂氣)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담대한 소수의 영혼들에게 모든 영혼의
구원의 짐을 지우게 할 뿐.
모든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전디고 싸우는 이들,
인생 여정의 끝 날에 교황 바오로를 만나리라.

1969년 8월 19일, 테레사 성녀는 '영적 어린이의 길'이라는 시적 메시지를 나에게 받아쓰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표현하는 느낌이기도 하다고 말해주었다.

영적 어린이의 길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풍요롭기에
도둑이 들까봐, 잠궜놓지도 걸어놓지도 않았고,
언제나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선물 당신께 드립니다.
복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의 것, 그곳, 당신 나라에 잠이 주시고
저에게는 당신 뜻만이 이루어 지시기를!

다음의 시적 메시지는 이해하기가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전에 말했듯이 테레사 성녀는 매우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다.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읽고 있으면 미소가 흐르는 것이 마치 빵을 굽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이다. 물론 빵은 성체를 뜻하고 반죽은 어떤 형태로 주조 되어가는 인간을 뜻하리라. 테레사는 받아쓰라고 하였다: 자, 어떻게 영혼이 주조 되어 가는지 보기로 하자.

영혼을 주조하는 법



크고 작은 영혼을 고르시고,
기도로 그들을 잘 섞는다.
꽃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듬어서,
사탄의 소굴에서 빼낸다.
영광을 향한 길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설탕과 향료를 친다.
그리고 내 놓는다.-



그 빵은 언제나 신선하다.

이 메시지에서 "꽃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듬어서"라고 테레사가 말했을 때, 꽃 같은 마음은 은총의 미하는 장미를 언급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 놓는다는 뜻이겠다. 그리고 "영광을 향한 길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설탕과 향료를 친다." 라고 쓴 부분을 보기로 하자. 자, 설탕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길을 인간들이 따를 때, 인류를 위해서 마련된 온갖 좋은 것들을 말한다; 향료는 지옥과 인옥과 징벌이라는 지식(知識)을 뜻한다. 그리고 인류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인류에게 내려질 다른 보속들도 의미 한다.

1969년 7월, 성모님께서는 테레사 성녀와 함께 내 침실 방에 오셨고, '빛 속에 계신 성모' 라는 시를 쓰도록 하셨다.

빛 속에 계신 성모

우리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쏟아진 수정(水晶) 같은 광채(光彩)는
그녀의 천상 수의(壽衣)에서 밝게 빛나고
사랑의 흰 불꽃, 치유의 불꽃 되어,
응답을 애타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면류관에 놓여 있는 천상의 별들은
일렁이는 성운(星雲)되어 지상을 직시고,
번역이 필요 없는 벨벳 같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모든 국가의 영혼들에게 그녀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은 오로라,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과 천국에서 보내 주신것.



1968년 8월 30일, 테레사 성녀는 다른 메시지들을 받아쓰게 하시면서 세상 모든 갈멜 수도자들에게 전해 주도록 하셨다. - 갈멜 수도자들과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시련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나의 신앙을 기다리며

예수님, 그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란 분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말은 나를 슬프게 하지만,
당신 오실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심판의 날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는 그들에게 인사할 겁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요.
나의 말에 귀기울여 달라고
나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 하나 밖에없고,
내가 하는 일로써
영혼을 구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며
가는 길에 내가 인도를 청하는 것은,
나날이 저야할 십자가가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내곁에 계시옵고
당신의 현존(現存)을 가까이서 느낍니다.
나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실 그날을.
정원을 거닐며,
손에 장미를 들고,
왼손을 내밀어서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헤일 수 없이 긴 세월 기다려왔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따랐습니다.
내 마음 당신으로 채워질 때까지.

1968년 10월 28일. 테레사가 베로니카에게 내려
준 메시지.

영원히 반짝이는 별.

이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밝게 빛나는 별 하나,
그 필라멘트는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낮에도. 밤에도.
그 빛은 사랑의 빛.
그 빛은 지고(至高)한 선(善)의 빛.
시간이란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서 흐르는
희망과 확신의
빛줄기는
믿음을 남아주고,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를 요구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듬고,
사랑을 하늘에 드리려고 힘쓸때
무엇보다 보람있음을 우리는 느낀다.
주님의 뒤를 따라 길을 걸으며,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모든 성인들과 결합하자.
그리고 이 모두는 진실:
좌절의 시련과 슬픔 가득한 지상에서
고통과 수고의 시간은 잠시.
그러니 잘 견디고 모든 것을 사랑하자.
그분 성심(聖心)의 바래심이
그분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
결합하는 것이기에.

1968년 8월 9일 테레사 성녀가 나에게 만
아쓰게 한 메시지. "성체안에 계신 주님"

성작의 거양:
희생과 수락의 장엄한 순간.
마치 세상을 에워싸듯
등근 성체.
태양과, 달과, 지구와도 닮았다.
온통 선(善)으로 에워싸여 등글어졌고,
이제 부수어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
조각마다 같은 성체(聖體)의 기적이다.
지상에서 우리안에 머무시는 성신(聖神)의 현존.
오,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천사들과 성인들의 거룩한 가정인 당신의 왕국으로,
만유(萬有)위에 당신만을 사랑하옵나이다.



1968년 8월 3일, 테레사 성녀는, 삶의 길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
는 詩的메세지를 보내주셨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행복

아침에 눈을 뜨며 맞이하는 하루,
기도로 여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하늘을 우러러 할일을 여쭙는다.
당신을 찾아 가는 길을 따라
다가온 또 하루
내가 물리쳐야 할 유혹은 손짓하건만,
나는 당신 짐배될 것을 약속하였다.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나서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주고 받는다.
사명감에 불타는 가슴에
두려움은 없고,
나는 주저없이 말하리라,
당신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의 이야기름.
그들이 결코 믿지 않을지라도
나의 이야기는 모두 진실,
내가 본 이 환시들은 모두
당신께서 내려 주신 선물이 옅기에!

1970년 1월 8일, 테레사 성녀와 성모님은 내 침대 곁으로 오셨고, 테레사는 '피에타'라는 제목으로 시적
(詩的) 메시지를 받아쓰게 하였다. 지금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像像)는 로마에서 바로 이곳, 성모님께서 철

야 기도를 주재하시는 이 플러싱(Flushing)에 옮겨와 있다.
 작년 세계 무역 박람회때 교황 바오로께서 미사를 집전하신 이곳에서 우리가 철야기도를 하고 있다니.... 하늘의 안배가 참 놀랍기도 하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생활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것이 메시지 '피에타'이다.

피에타

그녀의 팔에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안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심장— 죄가 빚어 놓은 고통으로
 찢어져 피가 흐른다.
 오! 고통 가득한 어머니,
 아직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린 슬픔을 모두 기억 하실 텐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 나의 딸아, 나는 은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재앙에서 구해낼 것이니,
 구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슬픔으로 깊이 찢어진 그분의聖心を 매만져드리고,
 죄가 찢어 피흐르는 상처에 입맞춤해다오
 애야, 우리는 지금 과거를 재현 하고 있단다—
 질투, 증오, 탐욕, 욕욕!
 다시 한번 그분은 거기에 매달리신 채,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을
 치워 버리도록 간청을 하신다.
 길을 길고, 넓게도 만들어 놓았더구나!
 자, 보아라, 빛이 희미해지며 우울해지고 있다.
 시간이 있는 지금 귀를 기울여라!
 회개하고 너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이 너를 성지(聖地)로 이끌게 해다오.
 그분의 신비한 원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과 영혼의 평화와 축복 속에서,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일을 해 가렴.
 너는 천국의 모든 보물을 찾을 것이다!



자, 하늘에서는 성모의 발현과 이 모든 계획들을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었단가. 메시지 '피에타'는 1970년 1월 8일에 주었으며, 그 당시에는 성 로버트 벨라민 성지에서 철야기도를 시작도 하기 전이고, 또 성모님의 첫 발현이 있기 전이니까.

그리고, 벌써 천국은 그들이 의도했던바 대로 "신비한 원"이란 표현을 이詩에서 이미 쓰고 있었다. (몇년 후인 지금이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그곳은 원으로 둘러 표를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있는 지금 귀를 기울여라. 회개하고 너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라. 그분이 너를 성지로 이끌게

해다오.” 그 당시에는 聖 로버트 성당 지역을 ‘성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 까닭은 첫 발현이 1970년 6월 18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때는 1월이었고, 나는 그 당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친국은 벌써 성모님께서 6월에 그곳에 오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 지금은 1970년 1월 8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들에는 계획이 있었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실천해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1970년 1월 3일, 내가 자필(自筆)로 쓴 노트는 이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을 보스턴의 리차드 쿠싱 추기경님께 보내드렸다. 내가 테레사 성녀와 성모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그분께 보내드렸다. 매일 그분은 나에게서 편지와 노트를 받으셨다. 그분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답장을 보내 오셨고, 내 지향을 위해서 미사를 바치겠다고 말씀하셨다. 쿠싱 추기경 소유 물건들이 있는 어느 곳인가, 추기경님께 보낸 붉은색 노트 속에 메시지들, 시적(詩的) 메시지, 그리고 많은 글들이 있을 것이다. 그 노트 들은 얇고 붉은색의 루즈 - 리프식 노트이다. 분명히 보스턴의 어디인가 그 노트 들이 아직 있을 것이다.

내가 테레사 성녀로부터 받아쓴 글 들 중에서 복사본을 리지웨이 수도원 수녀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그 수도원의 원장 수녀님은 일년이 지난 후, 수녀 한 사람이 무례하게도 - 어느 정도 신비주의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매우 개인적인 발현이라고 생각해서 - 모두 태워버렸다고 말해주었다. 이것은 원장 수녀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내가 쓴 많은 다른 노트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복사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이 여기에 남아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날 붉은 색 루즈 - 리프로 된 노트가 이 메사쉴세츠 어느 곳에서 찾아질 것이다.

1970년 1월 3일 쓴 테레사 성녀가 나에게 준 시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다. 그녀는 제목을 “예수님, 영원히 내 가슴에 십자가를”이라고 하였다.

예수님, 내 가슴에 십자가를

내 가슴에 당신 손을 놓으시고
 내 장래, 당신 입맞춤으로 봉(封)해주소서.
 영원한 본향(本鄉)을 향하는 이 영혼,
 사람과 지복(至福)의 당신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지상의 육신 패락에 묶여있는
 족쇄에서 내 영혼 자유롭게 해 주시고
 천상보화로 빛나는 그곳,
 당신의 나라로 오르게 하소서.
 지상의 삭막한 어둠속에서 내 길을 비추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봉인을 놓으소서.
 천상 만나로 내 영혼 기르시고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약한 영혼들과 당신 우정 나누시고
 하늘의 힘으로 강하게 해 주소서.
 우리 앞에 길을 끊고 바르게 해 주시고
 꽃의 향기를 보내주소서.

자, 그 당시에 테레사는 사랑이 천상향기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향기라는 단어를 o-d-o-r이라고

였지만, 그녀가 "odeur"라고 말해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테레사는 '사랑이 천상 향기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테레사 성녀가 지시해서 내가 받아쓴, 기도를 바치는 모습의 詩的 메시지가 또 있다. 그리고 "기적의 어머니께"라고 제목을 붙여주었다.



기적의 어머니께



복되신 어머니, 저를 인도하십시오!
언제나 여기 제 곁에 계시옵소서!
이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에게 밝은 내일을 보여 주소서!

나는 1968년 8월 20일에 쓴 노우트를 여기에 덧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메사쉴레즈, 브라이언, 키민웰스 에비뉴 2101에 거주하시는 리차드 쿠싱 추기경님께 전보를 보냈다. 그리고 전보에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테레사 성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썼다.

나는 이미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는 월요일에 무섭게 느껴지는 검은 독수리가 하늘에 나타나서 '양화로다, 양화로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화로다!'라고 외쳤다고 썼다. 그리고 분명히 화요일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침공 당했다. 스프링 필드를 걸어가고 있을때 내가 본 이 음침하고 무서운 검은 독수리의 환시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상 사람들에게 양화가 있을 것이다. 양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쳤던 것이다.

1968년 8월 23일 "살아 있는 4생물들"에 관해서 테레사 성녀가 나에게 쓰게한 단편을 여러분이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성 마태오, 성 마르코, 성 루카, 성 요한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읽기를 바란다. 매우 재미있다. "살아 있는 4생물", 단편(短篇)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표현 능력을 주셨더라면, 그들의 영광 중에 있는 4생물들 중에서 누군가를 끌고 지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리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느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처럼 천상 거주자들에 의해서 인도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상에 사는 영혼들이 그들을 묘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인간은 아직 문자, 글로서 어느 현상을 표현해야 하고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 마태오 성인을 보자. 그는 인간으로 묘사 되고 있다. 연로하시며 자애로운 영혼, 둥근 얼굴, 그리고 흰 머릿결 (나는 그 당시도 빗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우리들의 천상 방문객들은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있었기 때문이다 - 베오나가의 표현) 얼굴은 자상해 보이며 수척하다. 우리를 내려다 볼 때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곤 한다. 모가 나지 않은 영혼!

마태오는 수줍음이 있으며 휘몰아치는 구름 뒤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얼굴을 빼죽

내밀곤 한다. 어느 날 나는 구름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를 붙잡았다. 그는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몹시 당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태오의 눈물이었다.

성 요한은 색깔로 표현을 잘 하신다. 아, 지상에 인류들이 이것을 좋아 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에 그는 어두운 색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양화로다, 양화로다, 양화로다!"라고 말한 뒤의 결과 때문이리라. 검은색은 언제나 매우 음침하다. 검은 독수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리라. 흰색은 너무 평화롭다. 교회의 어른들은 그를 독수리로 표현했다. - 그러나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 그 까닭은 사랑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를 차라리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성모님께서 모두 지워 버리신다 - 범쵸!!

루카 복음사가 - 황소 - 그러나 그를 우매한 황소라고 말하지 말라. 그는 문장력이 뛰어 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칼을 쓰지만, 그는 펜을 들었다. 물론, 나는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한다. 요한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묘사 할 때는 탁월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양(羊)으로 묘사 되고 있다. 그는 천상의 벗들 중에서 사자의 몫을 바라신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짜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악마적인 영들을 속여야만 한다. 뺨힌 영혼들에게 암호 형상들, 경우에 따라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며 매우 혼란을 주기도 한다. 물론, 이 작은 악마들이 모든 일에 다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러한 말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신비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상징적이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침공당하기 전에 내가 하늘에서 본 검은 독수리도 역시 그러한 것이겠다.

1970년 12월 26일 베로니카에게 내려준

꽃들의 인도자, 마리아.



영혼들의 정원에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절망으로 허약해진 꽃잎들을 어루만지시며
생기(生氣)를 불어 넣어 주시고,
생명의 물을 부여주시고
지상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허약해진 초목들을 먹이신다.



온갖 색깔의 꽃들이 널리에 피어나며
봉우리마다 천상 용도로 쓰일 아름다운 약속이 있기에
빛을 가리는 어두운 오물들과
날파리들로 허약해져 굶은 줄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신다.
피어나는 꽃들이 그분나라에서 오는 빛을 받게 하시려고
그녀는 살며시 돌려 놓으신다.
꽃들 위에 은총을 흩뿌리시며
하늘을 향해서 곧고 바르게 자라게 하신다.
꽃들 중에 지극히 아름다우신 그분은
성자 곁에 앉으신 그 곳에서
모두를 맞아 주신다.
아, 사명을 잘 마쳤구나!

1969년 10월 11일 테레사 성녀가 베로니카에게 주신 메시지:

미카엘과 마지막 날들

사랑 가득한 마음들이 즐겁게
 '골든보이' 라는 벗(友)을 만나러 모여든다.
 그가 천국에서 내려왔고,
 고통중의 크리스찬들을 보호하고 막아서니,
 사탄도 꺾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위대한 영광을 주시(注視)한다 - 빛의 그날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두움을 걸우어내신 그 날!
 그분은 메마른 목초지에서 양들을 모으셨다.
 황폐한 곳에서 나온 것이라곤 - 죄의 산물들뿐!
 그분은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셨고,
 행복한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
 모두와 하느님을 지복직관(至福直觀) 한다.

1970년 4월 17일 테레사 성녀가 나에게 받아쓰게 한 詩的 메시지:

그분은 초원을 푸르게 가꾸셨고,
 그 푸른 들판에서 백합들을 자라게 하셨다.
 비와 태양을 보내셨고,
 추수를 하셨다.
 씨앗들을 정원에 뿌리시며
 지상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성신(聖神)을 보내시어 인도를 하였고
 그렇게 너희는 늘 빛 속을 거닐었다.
 그러나 너희가 새 길을 찾아 나섰고
 이곳에서 육신 퇴락 속에서 방황하며
 결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성신(聖神)께서 1969년 10월 15일에 주신 메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궁핍하기만 하다! 징벌이 눈앞에 닥쳤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다가오는 황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의로운 양 한 마리를 구하자. 각 신자들이 한명의 영혼이라도 모아들일 수 있다면, 천국의 입구는 웅장하고 풍요로워 질 것이다!

사랑하는 네 이웃이(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 중에 있다면, 차마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자, 상상해 보아라,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을. 영원한 행복을 상실한 그 마음의 고통을!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절규를!

그리고 우리들의 하느님의 고통을 - 그분은 돌아서서야만 한다!
 그렇다. 마지막 순간,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다시 시작 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시간이다: 과거, 현재, 미래 - 지금이다!'"

베이스ایت 성모 발현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거나 聖地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Shrine
 P.O. Box 52
 Bayside, N.Y. 11361

KOREA: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로사리오의 성모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홍 B/D 207호
 ☎ 02-419-5450



